

포천의 소리와 몸짓을 이어가자

지금까지 알려진 기록에 의하면 포천에 사람이 살았던 시기를 구석기 시대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자작리나 영송리의 흔적으로 보아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에도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역사적으로 포천에 관한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 중기 정도에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남진정책과 신라의 국경이 위로 북상한 것 그리고 공예와 왕건이 겨루던 흔적이 많이 남아 시대를 조명해 주고 있다.

지명은 고구려시대 마홀, 신라시대 견성군, 통일신라시대 청성군, 고려시대 포주, 양주, 조선시대 포천현과 영평현으로 쓰여오다가 1914년 포천군으로 통합되었다가 2003년 10월 19일 포천시로 승격의 과정으로 변화 되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방문하면 특유의 생활상을 보기 위해서 흔히 박물관으로 향하게 된다. 박물관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생활상과 흔적을 전시하여 그 나라만의 문화와 예술을 한눈에 느끼고 터득하게 되어있다. 또한 전통공예를 통하여 그 나라의 의미보다는 역사와 문화의 체험을 경험하게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지역에는 과연 무슨 볼거리가 존재 하는가 그리고 우리조상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보존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나의 존재를 찾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지난 12일 가산면 경북중학교에서는 포천메나리 시연회가 있었다. 그동안 포천메나리에 대한 선입견은 말로만 듣고 눈으로만



이희용
포천메나리 회장

그런 것이 있나보다 하는 정도로 멀리서 별다른 거부나 애정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러나 효도를 하려하니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다는 말이 있다. 포천메나리 시연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소리와 몸짓이 자칫 그 승계의 위험을 염려해야 하는 시기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농사를 짓는 과정과 일정을 한 작품에 결집시켜 한눈에 체험할 수 있어 우리조상들의 몸짓과 소리가 합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포천메나리이다.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제대로 재현하는 동작과 함께 이

루어진다.

특히 입산소리는 메나리 토리류의 포천에서 불려지던 아리랑이 들어 있고, 무벌매기 때 불리는 포천메나리는 메기는 소리, 지르는 소리, 받는 소리, 내는 소리, 맺는 소리 다섯 조로 편성된 소리로 불과 삼사십년 전만해도 들에서 불려 지던 일 소리이다.

포천메나리는 1982년 전 경인교육대학교 김순재 교수에게 포천시 가산면 지역에서 전래되어오던 농요를 10여년간의 고증을 거쳐 발굴 채록하여 1991년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우리의 전통의 전통예술을 영구히 보존하고 후세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1997년 포천시의 지원으로 메나리 전수회관도 건립하였다. 그 후 포천메나리는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0년 8월 21일 민속악으로 구분되어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35호로 인정받게 된다. 2004년 10월 1일 포천시민의 날 시연회와 2005년 10월 3일 전국민속놀이 공연 포천공설운동장 시연회 청소년부분 대령상을 수상하

운천에서 온 편지 '억새꽃 축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영북면 산정리 산자수려한 명성산(산정호수)등 정 넓은 산자락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포천시장과 다수의 공직자와 축하객과 더불어 산이 좋아 산을 찾은 이들이 감사와 푸근한 마음으로 초야에 물려 잠시 잠깐의 세상만사를 잊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산자를 만끽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남은 생 보람 되어 쓰기를 다짐하며 깨달음에 귀한 날이 되기를 다들 기원해 보았으리라.

하지만 문제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포천시(영북면)의 행사가 산정리 일대인들의 행사가 된것 같다. 예를 들면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만끽하고 하산하면서 기념품 구입, 풍물구경, 먹거리 장터, 특산물 시장 등 고장의 유명하고 격조 있는 행사를 소개하여 살살히 경유하도록 순회 답사 코스를 선정 줄기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단순히 산행만 하고,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가거나 이동 쪽으로 넘어가 갈비만 시식하고 가는 정도는 너무 아깝기 그지 없다. 테마코스를 속히 개발하

여야만 하고, 산정리 상동, 하동 주차장에 안내와 의료봉사, 편의시설 보완 등 천막 및 돐만 보일 뿐 산을 내려가는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흠뻑 빠져들어 갈 놀이와 구경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소중한 기념품, 선물 주기등 무언가 단순한 다시 오고 싶고 남에게 소개하고 싶은 추억의 장소로는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또한 산정리 상, 하동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연병장을 활용하였다거나 같은 값이면 영북면사무소 마당과 넓은 도로변을 정비해 주차된 차들을 시내로 내려보내고 그곳에다 주차장도 마련하고 놀이마당에 먹거리와 특산물시장, 시내 관광도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참으로 안성맞춤이 아닌가 생각된다.

산정리 쪽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영북면 운천리 쪽은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하였다. 영천강 강변도 어느 군이 시장견학을 관광코스로 넣어 한번 돌아 본 일이 있었는데 사실 볼 것도 없지만 호기심에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약재료 등을 구입하여 온 것을 보았다.

근래, 비가오지 않아 등산코스에 많은 먼지로 인해 등산객



손영배
포천시의회 부위원장
명정사 운영사무소 소장

에게 대단한 불편을 주었다하니 차후엔 중간, 중간에 물웅덩이를 준비하여 아간에 물을 뿌려 먼지도 잠재우고 등산객도 잠시 손이라도 씻고 쉬어가도록 하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축제기간이 너무 긴 것 같다. 2~3일에 걸쳐 축제를 축제답게 하고 나머지는 늦지 않도록 다녀가시게 지속적인 홍보와 수지타산만 맞추면 되지 괜한 기간만 잔뜩 늘려 여러 사람 고생시킬 일은 없다고 본다.

행사가 끝나도 산이 좋아 울 사람들은 꾸준히 올 것이고 행사를 못 본 사람들은 내년을 계획할 것이다. 행사 후엔 각양각색의 뜻 있는 지인들이 모여서 실시했던 모든 상황들을 분석하고 차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므로 명실공히 이름 있는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해를 더더욱 멋진 축제를 기대 해본다.

기사제보

종교편향의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포천시립합창단은 종교와 상관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2년전 7살 된 딸과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공연을 관람하고 왔다. 딸이 "나도 크면 시립합창단에 꼭 들어 갈거야"라고 반원아트를 대강당에서 노래 부를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꿈을 키워 왔습니다.

드디어 2학년이 되었고 시립합창단의 공개모집 오디션의 공고를 보고 딸이 "엄마! 나도 시립합창단에 꼭 들어가야"라고 울면서 말했다. 딸이 시립합창단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나도 크면 시립합창단에 꼭 들어가야"라고 울면서 말했다. 딸이 시립합창단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나도 크면 시립합창단에 꼭 들어가야"라고 울면서 말했다.

"종교에 출석교회를 왜 쓰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의 의도는 시립합창단이니 만큼 중립성을 유지하고, 시정해서 다시 지원서를 올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주최측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고, 좋은 곡을 정하라고 보면 성가에서 고르게 된다는 얘기를 했고(그거야 담당자 맘이지만), 저의 종교를 묻고, 전 카톨릭이라고 답하니 같은 기독교면서 왜 그러냐고 했고, 지금까지 이 출석교회기재에 대해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어린이 성가대를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시정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 종교며 출석교회를 지원서에 써야하는 이유가 없으며, 지원서에 출석교회를 쓴다는 것은 오디션에서 당락의 결정에 참고하겠다는 공개적인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의 종교를 알아보고 싶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지 알고 싶으면 공개오디션 통과 후에 다시 개인 신앙을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원에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주최측에 불신감이 생

기며, 합창단 활동을 그토록 기대하던 딸이의 첫 오디션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은 씁쓸합니다.

참가지 못하는 이유는 출석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원서의 출석교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최측의 오만한 태도에 웬만한 용기 있는 자가 아니면 참가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지원서를 본다면 어이없고 신하게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립합창단의 지원서냐며 놀랐습니다. 다른 동료는 "나도 개인 교회에 다니는 신자이지만 시정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즘 대통령도 종교편향적인 정치를 한다고 나라가 시끄러운 판에 시골의 작은 도시의 종교편향적인 시정운영의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유기교

야구 올림픽 금메달 준비된 것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세계의 우수한 선수들과 기량을 뽐내며 선전해 많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고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돌아왔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마케팅의 효과는 경제와 기업의 경영 그리고 국가의 위상과 비례하는 것이 사실이며 현실이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마케팅 효과는 우리대표팀을 '4강 신화'라고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번 베이징올림픽의 많은 메달 중 단테경이나 구기종목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경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야구경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최고의 팀을 자랑하는

쿠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상대로 전승을 기록하며 태연 금메달을 자랑할 만하지 아니한가. 이런 영광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의 야구엔 시련도 있었다. WBC세계야구대회에서의 모든 강팀을 이기고도 탈락한 어이없는 리그경기대회는 기억하기 싫은 대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한 예술에 가까운 짜릿한 경기와 전승의 금메달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번 우리나라 야구의 금메달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포천시리야구단의 단장을 하며 한국야구위원회와 한국리틀연맹 등 많은 중앙의 사람

들을 만나고 많은 대화와 회의에도 참석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다지면서 느낀 점은 한국야구는 유소년 육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구연습이 어려운 겨울방학 이번 전국의 유소년 지도자들을 모아 기술과 유소년 부상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을 하고 포항시와 같이 지자체를 통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축제의 야구대회를 여름방학을 통해 만든 것은 대단한 노력과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야구는 생각하는 운동이다"라고 나는 항상 우리 리틀야구단 어린이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포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장



천에 나는 바란다. 내일을 위하여 투자할 때이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우리 미래를 지고 갈 아이들에게 진정 과감히 투자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어린이와 교육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포천도 한번 해 보자.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하루 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이지만 건강과 스포츠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대사회를 살고 있다. 이중 스포츠는 취미생활과 함께 사람과 건강을 이어주는 다리라 여겨진다.

10월 1일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자체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해 고객님들께
신용있는 공사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 10. 1

고은종합전기(주) 임직원 일동

취급공사

- 한전
- APT
- 빌딩
- 기계소방
- 공장
- 병원
- 호텔
- 전기소방
- 학교·관공서
- 가로등·신호등
- 인테리어
- 상가 및 기타



고은종합전기(주)

■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 전화 : 031)542-9771~4 / Fax : 031)542-1115